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제5대 후반기 용인시의회 새로운 의지 다짐!



심노진 의장, 후반기 용인시의회 의장으로 재선출

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는 지난 2일 제12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회의에서 김민기 의원의 6명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의장 선출의 건을 의결한 뒤 투표를 통해 제5대 후반기 용인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선거를 실시했다.

투표는 시의원 20명 모두가 후보가 되어 후반기 의회로서 의회를 이끌어갈 의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어 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되었고, 2차에 걸친 투표결과 전체 20명의 의원 가운데 11표를 얻은 심노진 현 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출되었다.

또한, 부의장은 13표를 얻은 김희배 의원이 선출되었고, 운영위원장은 박원동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은 김정식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이우현 의원이 선출되었다.

선거를 마치고 심노진 의장은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83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책과 민의를 대변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을 엄중히 행사하겠다." 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



존경하는 83만 용인시민 여러분!
제5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심노진 의장입니다.
용인시민과 여러 의원들의 성원으로 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당선 영광보다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동료 의원들과 저를 지지해주시는 시민들이 계시기에 한편으로 든든하기도 하며, 2년간 의장직의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솟구칩니다.

저는 제5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초창기 어수선했던 의회를 결집시키고, 집행부와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용인시의 발전가능성은 무한정하며, 향후 120만 용인시민은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용인시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봉착해있습니다. 대도시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터전이 되느냐 아니면 그저 인구만 많은 평범한 대도시로 남느냐는 향후 2년의 시정운영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향후 2년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전 시의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꿈의 실천과 미래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주민의 소소한 목소리라도 소중히 여겨 적극 수렴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각계각층 시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고견이 의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8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견제와 협력으로 더욱더 집행부와 균형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한 투명행정 구현으로 깨끗한 용인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용인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0만의 대도시로 성장할 무한한 잠재력과 미래가 있는 도시입니다. 자칫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비전이 없이 성장한다면 기형도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채찍과 당근의 적절한 대처로 용인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내부결속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들의 화합을 기반으로 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동·서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당을 초월해 하나 된 모습으로 신뢰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가 벌써 제5대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대(代)를 거듭할수록 좀 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고 자인합니다. 83만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가 필요합니다. 83만 용인시민 한분 한분의 고견을 소중히 여겨 변화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꼭 필요한 의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으로 삼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시민들에게는 지팡이로, 동료의원들에게는 동반자로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용인시의회 의장 심 노 진

120만 용인 유토피아를 위한 개혁의 시대 선도



제5대 용인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름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 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의원 모두가 지난 전반기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고 시민 복리증진을 통한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며,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제5대 용인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것은 시민여러분들이 우리 시의회를 믿고 깊은 애정과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시에는 경전철 재원 확보, 지역경제의 기반이 될 산업단지조성의 전제조건인 송탄상수원보로구역 해지, 전철 분당선 연장 조기개통 등 해결해야할 많은 현안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감내해야 할 숭한 도전과 시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

로를 아끼고 힘을 합한다면 120만 용인 유토피아는 앞당겨 질 것이며, 풍요로운 용인의 미래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에 부응하고 살기좋은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지역주민들의 참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으며, 소외받고 있는 이웃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다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의정역량을 결집하여 시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경제적 안정의 바탕위에서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봉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췌록 우리 시의회가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8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의회 부의장 김 희 배

민의를 통한 플뿌리 민주주의 꿈 실현



존경하는 83만 용인시민 여러분!

우리 제5대 용인시의회가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속에서 진정한 민주자치를 구현하고자 출범한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었으나, 플뿌리 민주주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용인시의회는 부단하게 노력하였고,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한걸음 발전해 왔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투명하고 열린 의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로 대변되는 현대에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가 과연 지역을 위해 그리고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시민과 함께 최일선에서 같이 호흡하고 편향되지 않는 민의를 수렴하여 각종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며, 그러한 의정활동이야말로 후반기 우리시

의회가 추구할 최우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반기 용인시의회는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합심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시민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조리가 입안될 수 있는 의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의회도 시민여러분에게 위임받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 보다 성숙된 83만 용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시민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의회 운영위원장 박 원 동

법규와 원칙에 의한 지방의회 기능강화



용인시민의 기대와 여망속에 제5대 용인시의회가 개원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한지 어언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초선의원으로 항상 배운다는 일념으로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의견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성과를 이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세기는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글로벌 시대이며, 정보와 개방화의 물결속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판단하는 안목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과 함께하고 풍요로운 용인시를 가꾸어나간다면 용인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5대 용인시의회 의원 모두는 변화와 개혁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살기좋은 용인시를 만들어가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용인시의회를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 법규와 원칙에 근거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5대 용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용인시의회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앞서가는 의회, 희망이 넘치는 의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 정 식

능동적인 사고로 시민 본위의 의회상 확립



존경하는 83만 용인시민 여러분!

아직도 설레이는 맘이지만 제5대 용인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방화로 대변되는 현대에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사명감을 지키고, 83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올바르게 대변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했던 2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제5대 용인시의회는 후반기 의회 구성과 함께 투명하고 열린 의정을 펼쳐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다각적인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의원 모두가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본위의 의회상 확립은 물론 충직한 봉사자의 모습으로 시민여러분께 한걸음 더 다가갈 것입니다.

현재의 급변하는 정세속에선 지역을 위한 부단한 혁신과 시민참여를 통해 문제점을 접근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때 치열한 무한경쟁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속화되는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 용인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기다리기 보다는, 그 흐름을 예측하고 능동적인 사고로 신속히 대처해 나갈 때 뒤처지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반기 의회의 시작을 맞이하여 우리시의회가 그 변화의 선봉에 서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의정역량을 결집하여 건설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서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안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후반기 의회를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더욱더 시민여러분께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 우 현



- 전반기의회 2년의 발자취*
- 01 08년 신년인사회 및 시정보고
 - 02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의
 - 03 노블레스오블리주 자원봉사
 - 04 미국 5710 G.S.E 접견
 - 05 행정사무감사 사전현지방문
 - 06 행정사무감사 사전현지방문
 - 07 신갈 1·C명칭변경 10만인 서명운동
 - 08 태안군 기름유출관련 성금 전달





- 09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르기
- 10 우기대비 공사현장 방문
- 11 집행부 의견청취
- 12 의원 워크샵
- 13 의원 워크샵
- 14 제89주년 3·1절 기념행사
- 15 의원 지역순회간담회
- 16 의장단 현충탑 참배





일본정부의 독도 영토침탈행위에 대한

용인시의회 “독도수호 결의안” 채택

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에서는 2008년 제130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난 7월 14일 일본정부의 새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의 사회와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본정부의 영토 침탈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그 철회를 위한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용인시의회는 83만 용인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일본중학교 사회·과학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서에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자국영토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엄연한 영토침탈행위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용인시의회는 결의문 채택후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고 민영환선생님의 묘를 참배하면서 선조들의 국토사랑 정신을 기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망언과 행태에 대한 자주적인 결의를 다졌다.

참배를 마치고 용인시의회 심노진 의장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행태는 한일관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는 만행이며, 이에 우리는 7천만 겨레와 83만 용인시민의 자존심으로 한치의 양보없이 우리영토인 독도를 수호할 것이다”라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독도수호 결의안

지난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 침탈행위로서 용인시의회는 83만 용인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중학교 교과서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자국영토로 명기한데 대하여 중대한 영토 침탈 행위로서 한일 양국 장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니 이를 폐기 처분하라!

하나,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를 열어 가는데 적극 협조하라!

하나, 일본정부가 군국주의적 야욕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영토를 재 침탈하는 것이니, 이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한일관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용서 받지 못할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는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작은 섬이지만 선조들의 국토사랑 정신과 7천만 겨레와 83만 용인시민의 자존심으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독도를 수호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7월 16일

용인시의회의원 일동



2008년도 회기운영 및 안전 민원처리 현황



■ 회기운영 : 총 16일[정례회 1회, 임시회 2회]

■ 안전별 처리현황

- 조례·규칙·규정안: 8건
- 동의·승인안: 1건
- 예산·결산안: 3건('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불승인)
- 결의안 채택: 1건

■ 회기운영현황

구분	기간	일수(일)	처리안건(건)
제129회 임시회	'08. 7. 2. ~ 7. 3.	2	
제130회 제1차 정례회	'08. 7. 7. ~ 7. 17.	11	4건 (결산안 3건, 결의안 1건)
제131회 임시회	'08. 7. 21. ~ 7. 23.	3	9건(조례 8건, 승인 1건)

제5대 후반기 용인시의회 출범

■ 제129회 임시회 2007. 7. 2. ~ 7. 3.(2일간)

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은 지난 2일 제12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투표를 통해 제5대 후반기 용인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은 심노진 현 의장이 재선출 되었으며 부의장은 김희배 의원이 선출되었고, 운영위원장은 박원동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은 김정식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이우현 의원이 선출되었다.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실시

■ 제130회 제1차 정례회 2008. 7. 7. ~ 7. 17.(11일간)

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에서는 제130회 용인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이번회의에서는 7월 14일 일본정부의 새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의 사회와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본정부의 영토 침탈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그 철회를 위한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주요안건으로 다루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85%에 못 미치고, 미수납된 세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2007년도 전체 불용액이 1천885억원으로 예산 대비 10%에 이르고 있고, 이월사업 예산은 269건에 2천830억원으로 3·1 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사업의 6건은 집행이 전무한 바,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사업의 시기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기에 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용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단체장의 재량사항이나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등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어천 생태적 수질정화 바이오공사유지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故 백낙준 선생의 2주기 추모전시회 개최를 위한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를 예비비로 집행한 사실은 관계법령에 위반한다 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는 불승인 처리하였다.

결산안 심사결과 부당한 지출이나 위법한 지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시정조치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 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업무처리에 만전을 가하도록 집행부의 예산운영에 일침을 가했다.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심사

■ 제131회 임시회 2008. 7. 21. ~ 7. 23.(3일간)

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에서는 제131회 임시회를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마쳤다. 이번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확인을 주요안건으로 다루었다.

운영위원회에는 신승만 의원이 발의한 ▲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는 ▲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급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 ▲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용인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3일간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외 8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월액				불용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일반회계	1,332,105	1,364,493	1,025,783	196,224	51,200	9,283	135,741	110,098
기타특별회계	206,036	208,983	157,255	36,468	23,091	140	13,237	12,313
특별회계	공기업							
	수도사업	122,117	125,412	68,203	35,919	5,362	288	30,269
하수도사업	203,149	198,352	140,666	14,425	1,050	2,444	10,931	48,058
계	1,863,407	1,897,240	1,391,907	283,036	80,703	12,155	190,178	188,464
2006년도	1,673,678	1,672,700	1,256,394	270,881	59,713	4,022	207,146	146,403
증감	189,729	224,540	135,513	12,155	20,990	8,133	△16,968	42,061



시정질문·답변

제130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발췌했다.

현재 시공중인 경전철,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의원 : 이종재 의원

질문요지

현재 시공 중인 경전철의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분당선 연장사업이 죽전에서 기흥 구갈까지 2011년 개통된다고 하는데 추진상 문제는 없는지, 녹십자 용인공장의 이전지연으로 늦어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경전철 교각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우리시 교통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쾌적한 신

교통수단으로 도입한 경전철사업은 200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원발생 및 공사부진 등으로 계획공정보다 다소 지연된 72%의 공정으로 진행중이며, 본사업과 연계된 분당선 연장사업의 개통시기는 협약당시 2008년으로 계획되었으나, 정부예산투자부진으로 지연되어 2011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공기단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용인경전철과 분당연장선에 간섭되는 녹십자 용인공장 지장물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교각으로 인한 도시미관저해 개선문제에 대하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

종합운동장내 포장마차 이전설치 과연 타당했나?



질문의원 : 이동주 의원

질문요지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하천변 불법 포장마차를 종합운동장내에 이전해 준것이 과연 타당한 조치였는지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고림동 다세대 주택 주민들은 소음과 취객에 대한 두려움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소2-48호 도로개설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포장마차 이

전은 철거대상인 영세포장마차 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대책 마련과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대부분 사업을 접목시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이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느끼시는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검토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

소2-48호 도로개설시에는 이전비 지급을 통해 노점업주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관내 노점상은 향후 정비계획수립 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다.

출산장려를 위한 모유수유실 설치



질문의원 : 박남숙 의원

질문요지

현재 우리 용인시의 경우는 출산장려 사업으로 시민합동결혼식과 시민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젖먹이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편안하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관공서에 모유 수유실 설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내용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여

신생아 건강증진 등을 위해 모유수유 실천 강조와 함께 관공서 및 직장 내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는 시청사 및 처인구 보건소 등, 8개소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여 직원 및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홍보안내를 통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향후, 신축청사 건립 및 공공청사에 모유 수유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일반기업체, 학교 등에도 모유 수유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랜드마크로서의 "할미산성" 활용방안 제시

질문의원 : 신승만 의원



질문요지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가는 '경기도문화재 기념물 제215호 할미산성을 용인의 랜드마크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보전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내용

용인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장소인 할미산성을 문화유적의 영구보존과 활용을 원칙으로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교육 공간의 장으로 만들어 용인시민 누구나 찾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원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보개산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증을 통한 용인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향후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할미산성, 보개산성, 봉수대의 복원과 함께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안내 리플렛 제작 등 홍보계획도 수립하여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심도급행철도 관내 2개 역사 설치 건의

질문의원 : 박재신 의원



질문요지

최근 중앙 정부에서 동탄 신도시에 대심도 고속전철 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시속 100km로 설계되는 이 대심도 고속전철을 우리 용인시 죽전역을 정차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신 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내용

대심도 급행철도는 경기도에서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동탄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인 사항으로 현재, 경기 도시공사에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동탄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관련, 경기도에 대심도 급행전철의 관내 2개 역사 설치를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향후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우리시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동저수지의 자연친화적인 호수공원 개발



질문의원 : 신현수 의원

질문요지

금번에 시에서 지역산업기반 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덕성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남사공업단지 및 신도시개발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동저수지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호수공원으로 개발한다면 향후 시민쉼터 조성 및 용인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제공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답변내용

이동저수지는 국도 45호선, 국지도 82호선이 연결되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용인서북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동부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자원의 개발은 주변생활권의 여건과 수요예측, 개발방향, 자원마련 방법, 향후 관리방안 등, 매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장기적 안목으로 주변의 개발여건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 동부권 관광자원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상현동 난개발 치유대책은?



질문의원 : 지미연 의원

질문요지

상현동 난개발 치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상현동 일원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소규모의 산발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지금껏, 추가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으나 이미 시가지화가 형성되어, 신규 기반

시설의 확충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 근린공원 8개소, 소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가 계획되어 일부 조성완료 및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광교지구와 연계한 문화시설 확보와 불합리한 도로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상현동 입구 교차로 개선공사는 광고개발과 병행,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개선과 대중교통이 확충되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상현동 일원에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감원요구에 대한 대응방향은?



질문의원 : 김민기 의원

질문요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감원요구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지자체에는 적절하지 못한 처사인데 중앙정부의 감원요구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입장과 이에 대한 행정부의 명확하며 책임있는 대응방향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지침과 관련, 우리시는 3개 구청 6개과 축소 및 95명의 정원감축 계획을 권고 받았다. 우리시에서는 상급기관 방침에 일부 순응하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원 감축을 최소화 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실리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일부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다라도 현재 결원상황, 인구증가로 인한 기구설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시는 앞으로, 조직을 기술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다른 시·군과 같이 인위적 퇴출사례는 없을 것이다.

대형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질문의원 : 강웅철 의원

질문요지

현재의 용인시는 많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용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용인시민체육공원 및 기흥 호수공원 조성 등 대형시책사업 추진시 재원의 조달방안과 중장기 전략에 따른 재정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현재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인구가 급증

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나 향후 재정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따라서 대규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은닉세원을 철저히 발굴하여 부과 징수하며 경영수익사업 추진 등으로 가용재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고, 도로, 하수사업 등 SOC사업에 대하여는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자원 확보로서 내실 있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용하여 대규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이월사업에 대해

질문의원 : 이우현 의원



질문요지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사업과 이월사업비를 급격히 축소시키는 등 기존사업비를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예산운용방안은?

답변내용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조기에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재정계획 수립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세입 및 세출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국가계획과 긴밀히 상호연계하여 운영하겠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 할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적극적인 부과·징수를 통하여 자체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이월사업 최소화, 계속비사업 지양, 의존재원 확보방안 모색, 신규사업의 조절 및 사업우선순위 조정, SOC사업의 민자유치 확대,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건전재정운영의 기초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소규모 주민숙원 요구사업에 대한 방안은?

질문의원 : 박원동 의원



질문요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농촌지역은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민 숙원사업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는데, 백암면의 주민숙원 요구사업(청미천 제방도로 및 교량설치)의 1건에 대한 현장조사와 지원대책은?

답변내용

수시로 우리시 관내 농촌(낙후)지역 및 도시 개발지역에 대한 관심을 생활화하여 시민들의 건의에 앞서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발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백암면에서 요구한 청미천 제방도로와 교량설치 요청구간은 사유지를 포함한 비법정노선으로 토지수용이 불가하여 사업부지에 편입될 개인사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가 우선적으로 징구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가좌리 석실마을과 가창리 신창마을간 연결도로 요청구간은 백암지역의 농어촌도로인 근가선(리도202호)으로 현재 우리시 중장기 사업집행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어, 사업시행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중장기 도로사업계획에 동 노선을 반영하고, 재정 투·융자심사 등의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준비된 자... 좌절은 없다



이상철 의원

아침마다 기름냄새 물씬나는 신문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10년전 IMF 외환
위기 이후로 물가는 2배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유류값은 온 시민이 2부제에 적극 참여하
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하여도 증가하는 진폭에 비하
면 미비해 보인다.

원자재값 폭등, 소득 정체, 소비 감소, 투자 위축, 고용
축소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 침체: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
고, 최근 물가는 일본과 대만보다 3배 이상 폭등하고 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 세계의 경제 날씨는 연일 먹구름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 먹구름
의 끝이 언제 끝날런지는 아무도 단언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금의 서민경제를 살펴보면 10년 전에 비해 기름값이 두 배 이상 뛰었고, 곡물, 원자재
도 두 세배 오르고 있으며,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느끼는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상황을 보면 경제적 위
기는 시간상의 문제이며 멀지않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의 고물가속에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대외의존도 90%로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영
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 경제시스템에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총체적인
합의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대비하지 못하면 더 큰 충격과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 모두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10년전의 외환위기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극복해 나가지 않았
던가? 10년전 우리는 장롱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돌반지와 각종 금붙이를 내어놓았고,
가깝게는 태안반도 기름유출 피해를 짚은 시간안에 유례없이 극복해낸 유일한 민족이 아
니던가? 우리 모두가 단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안정과 경제활성화 뜻 모아 의기 극복

물론 단합만으로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그림자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
다. 문제점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안정과 화합을 이
루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이 끊임없이 시장의 개혁과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
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근검절약과 유비무환의 자세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여기저기서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노사간의 협력이 작년에 비
해 2.7배가 증가하였고, 물가상승 추세에 반하여 노사간의 협약된 임금은 동결하거나 그
인상률이 낮아졌다고 한다. 또한, 재계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은
1사 1인 추가채용을, 대기업은 10%이상 신규채용을 늘리는 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
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은 전개하고 있다. 작년 용인에 건립한 제1호 "사랑의 집"은 이미 입주를 마
쳤고, 제천·강화·장성 등지에서 현재 착공하여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삶의 터전을
건립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민족의 저력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라고 생각한다. 그렇듯 우리 모두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
한 인식과 노력을 새로이 다져야 한다. 정치가는 그동안의 경제정책을 뒤돌아보고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대
외경쟁력을 높이는 혁신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얼마나 빨리 진통을 겪어내고 극복할지는 지
금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경제적 위기가 장기적이고 만성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심각한 사태가 조만간 우리 눈앞에 펼쳐질 듯 하다. 그러나 준비하는 자에게는 좌
절은 없을 것이다.

넘어야 될 많은 산이 있지만 서로가 머리를 맞대어 하나하나씩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잔정 밝아오리라 생각된다.

강력한 리더십.... 미래로의 시작



신현수 의원

지금 우리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예측할 수 없
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분열되고 있는
여론과 정치적인 불안정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의 시름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의 상황
에 대해 회자되고 있는 말 중에 "리더십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로 리더십은
우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이
다. 지도자가 어디로 이끌 것이며,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
라 그 집단은 젓과 꼴이 넘치는 파라다이스에 도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위기의 상황이 다가
오는 지금의 현실에선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의미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내 생각엔 진정한 리더는 탐과 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수하고, 수없이
아쉽게 실패하고, 위대한 열정과 진정한 헌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자기를 바치는 그
러한 사람들을 진정한 리더라고 일컫고 싶다.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자. 여기저기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가고 있고, 어디를 가든 불
화의 파열음이 요동치고 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서민은 서민
대로 현실에 부딪치고 있으며, 이전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감을 상실한 듯 보인다. 한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의하여 우리사회는 지쳐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열정과 합의를 이끌어낼 리더들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진정 용인이 나아갈 바를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미래의 용인에
대한 청사진과 마스터플랜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까지처럼
감정적인 외침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진단이 되어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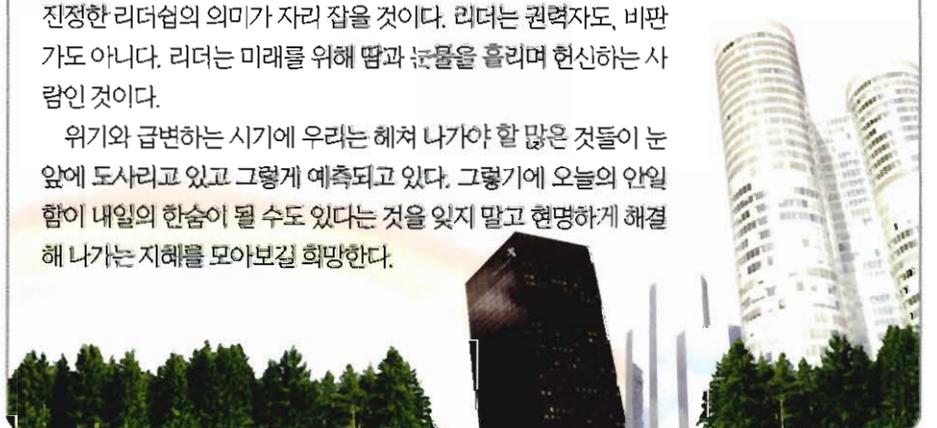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미래발전 도모

것이다. 그리고 용인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신뢰는 리더
십의 모든 것이다. 총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더 많은 열정을 시민들에게 쏟아야 한다.
신뢰는 정책이나 전략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슴으로 비롯된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형평성을 가지고 용인시민의 마음을 온전히 얻어내야 한다.

이제 현실에 대한 방관과 일반론은 접자. 이제 탐과 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현장에서 고
민하고, 다쳐진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야 한다. 문제의 제기와 비판으로 발전의 시작을 일
구어내고, 반성과 의견수렴을 통해 진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물론 시기적절한 결단
과 행동 또한 진정한 용인의 발전을 위해선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을 알고있다. 그러나 단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건 시민에 대한 따뜻한 가슴과 열린 마음으로 용
인의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일 것이다. 시민에 대한 애정 없는 문제제기와 의견충돌은 의
미없는 균열과 악순환의 시작일 뿐이다. 가식적인 반성과 형식적인 의견수렴은 말과 현실
의 괴리의 골을 깊어지게 할 것이고, 시민에 대한 애정 없는 결단과 행동은 갈등을 심화시
킬 뿐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출발선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겸허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결속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 그 핵심에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가 자리 잡을 것이다. 리더는 권력자도, 비판
가도 아니다. 리더는 미래를 위해 탐과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사
람인 것이다.

위기와 급변하는 시기에 우리는 헤쳐 나가야 할 많은 것들이 눈
앞에 도사리고 있고 그렇게 예측되고 있다. 그렇기에 오늘의 안일
함이 내일의 한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현명하게 해결
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보길 희망한다.



뭘 망설이는가?



박 남 숙 의원

‘백척간두진일보’란 말이 있다.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으로 막다른 위험에 놓이게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말이다. 1척이면 3.3m이고 100척이면 330m이다. 그런 높은 나무 끝에 간신히 서 있는 사람에게 한발 더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다. 위험하다고 몸을 사리거나 막다른 골목이라고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 철학자 나폴레옹 힐 박사는 “우유부단 이아말로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다”라고 했다. 위험 부담 때문에 주저하거나 기회를 엿보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속한 결단력의 소유자들이다. 실패한 사람들은 예외없이 결단해야 할 때를 놓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이란 사람이 있었다. 인삼을 들고 중국에 인삼을 대량으로 판매하려 간 적이 있었는데 중국 상인들은 임상옥의 인삼을 싼값에 사기위해 서로 담합을 하여 불매운동을 벌였다. 임상옥은 자금을 빌려 인삼을 사왔기 때문에 팔지 못하거나 싼값에 팔아도 한순간에 망하고 마는 처지였다. 해법을 찾지 못한 임상옥은 추사 김정희에게 급보를 보내 해결책을 물었는데, 그때 추사는 ‘백척간

두진일보’라는 글을 보냈다고 한다. ‘백척이나 되는 절벽에서 있다면 한 발자국 앞으로 내 딛어라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다.’라는 뜻이었다. 이 답변에 임상옥은 깨달음을 얻고 가지고 온 인삼들을 모두 불태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설마하던 중국 상인들은 정말로 황금보다 비싼 인삼을 태우자 난리가 났다. 만약 임상옥이가 가져온 인삼들이 정말 다 태워진다면 중국에 있는 인삼가격은 폭등할 것이고 그마저도 없어진다면 자신들의 위치마저 위태

신속한 결단력이 성공을 만든다

로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중국 상인들은 임상옥에게 매달려 그만 태우기를 간청했고 급기야는 태운 인삼값은 물론 기존의 인삼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인삼을 사야 했다고 한다.

우리가 살다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있다. 자기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다고 생각될 때, 절망이 눈앞을 가리고 현실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 생각나는 문구가 있다면 ‘백척간두진일보’라는 단어다. 나를 발전시키고 조직이나 단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말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발 앞을 내딛는 그 순간에 자신의 온 몸을 바쳐 내 던져 버려야 한다.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음이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말고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 이 몸은 여차피 없어질 몸

이다. 그 몸이 주는 조그만한 편안함에 안주하거나 비전이 없는 삶에 기대어 살다보면 자기가 죽어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느냐? 백척간두 그 절벽에서 자신을 던지면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이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 때에 비로소 살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그 뿐이 아니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경지에 도달하였다 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백척간두진일보’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을 의외로 자주 쓴다. 힘겨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는 이제 그만 포기하면서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노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곤 변명을 하며 포기하는 것에 대한 위안을 삼으며 함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꿈이 생각해 보면 최선을 다했노라고 변명조차 하기가 쑥스러워 짐을 느낀다. 힘겨움을 느끼게 되면 비겁하게 도망을 치거나 최선을 다했노라고 변명을 하며 그 힘겨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겨우 한발 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한발의 의미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다.

죽음만큼 힘겨운 순간에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하며 포기하는 것 보다는 한발 더 나아가는 그런 굳건한 정신으로 상황을 타개 할 때, 길이 보이는 것이다. 아무리 벼랑 끝이라지만 자존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백척간두진일보’하라. 길이 열릴 것이다. 뭘 망설이는가?



심노진 의장 (08. 2. 27.) 기초정치부문 중부 울곡대상 수상



박남숙 의원 (08. 4. 22.) 용인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공로패 수상



이동주 의원(08. 06. 04.) 용인시 농업경영인 공로패 수상



박원동 의원(08. 05. 29.) 경기도 여성발전 유공자상 수상



김민기 의원(08. 6. 30.) 전국지역 신문협회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생반기 의원

수상

제5대 후반기 용인시의회 출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밝은 용인의 도약을
꿈꾸겠습니다.”



“용인시의회는 시민위주의 열린의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용인시의회를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민여러분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5대 후반기 용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시의회는 내실있는 시민위주의 열린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